

문학적 면벽 20년의 고투, 그 壯觀

장편소설 「화두」 전2권 펴낸 최인훈씨



“나의 모든 정신적 재고와 재보를 통털어 쓴 이 작품에 대해 겸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작가 최인훈씨.

‘전후 최대의 작가’로 평가되어온 최인훈씨(58)가 20여년의 문학적 면벽 끝에 그간의 치열하고도 끈고한 사유의 결과보고서를 한국문단에 제출했다. 민음사에서 나온 「화두」(전 2권)가 그것으로, 원고지 4500매 분량에 ‘나’의 가열한 정신으로 세계사적 사건들과 정면 대결했던 고투의 ‘기억’들을 유감없이 펼쳐 보이고 있다.

최인훈씨가 썼다는 점만으로도 출간 이전부터 문단 안팎의 주목을 끌었고, 출간 이후에는 최인훈씨만이 써낼 수 있는 집요하고 명철한 지적 도전의 결실이란 평가를 받으며 주목에 값하고 있다. 「화두」의 발행일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19일에 벌어진 문학담당기자와의 공동기자회견은 한국문단이면서에 등재될 만한 전례없는 ‘사건’이었거니와, 발행된 지 한달이 채 못된 시점에 10만부를 상회하는 판매부수를 기록하는 현상 또한 방법적 대중문학이 만개하는 풍토속에서 매우 특이하고도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두」의 출간은 작가 개인사적으로는 침묵의 밀실에서 문학의 광장으로의 귀환이라 회

자된다. 작가는 73년에 소설 「태풍」을 쓴 후 지금까지 희곡과 일종의 예술원론에 해당하는 글들을 간단없이 발표했으나, “희곡작품과 작가의 이론적 탐구를 작가의 정신활동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학풍토” 때문에 신작장편소설 「화두」는 “최인훈씨의 문학적 복귀”라 우위되는 것이다.

20여년만의 문학적 귀환

“문학밖에는, 그리고 문학 밖에서의 나의 존재의미는 없다. 문학적 인격 이외의 다른 현실의 나는 거의 없는 셈이다. 70년대에는 적지 않은 분량의 희곡을 발표했고, 80년대에는 창작이 아닌 이론의 언어로써 한국문학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화두」는 문학양식 자체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소설이라는 미학적 구조속에 담아낸 작품이다. 굳이 ‘복귀’란 말을 쓴다면, 소설형식으로는 20여년만에 복귀한다는 것이랄 수 있겠다.”

20세기가 제기한 한반도와 인류의 운명을 ‘나=기억’을 중심으로 집약한 이 작품은 “두어깨에 20세기의 과제와 고통을 지고서 그 무

게를 느끼며 썼다”는 작가의 말마따나 빙산의 우람하고도 중량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핏줄이 젖줄 되는 產苦의 노고와 다름 아니어서, ‘나’의 ‘기억’을 쇠빙선삼아 인류 보편의 의식에 도달하는 정신적 혈투를 보여준다. 그 장관의 풍경은 한반도의 운명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광장」의 20대 청년작가의 역량이 지난 30여년의 신난한 한국사를 견뎌낸 원숙한 시선과 아울러 21세기 인류의 지형도를 방불한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진리는 밖에 있다’고 생각했다. 젊은 작가의식으로서의 탈속, 이탈, 제3국행이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였다. 그러나 오랜 사유 끝에 인생과 역사는 지속되며,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명준을 죽인 작가가 「화두」에 이르러서야 이명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마련해준 셈이다. 진리와 구원은 ‘나=기억’속에 있다고 「화두」는 말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내가 기억이다”란 명제를 반복적으로 천명한다. 짐승과 노예로부터 인간과 주인을 구별하는 존재증명서 혹은 등록필증이란 다름아닌 기억과 고뇌(마음의 아픔)의 有無이다. 짐승은 “바람이 바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그림자를 자기 마음속에 지닌다는 이상한 구조를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짐승을 넘어선 어떤 것 때문에 서로 불행”하다. “동물은 지평선 앞에서 멈춰선다. 인간은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것.

작가 崔씨가 국민학교 시절에 읽었다는 「쿠오바디스」의 ‘노예철학자’는 그같은 점에서 ‘나’의 화신이었다. 신본은 노예면서 어쨌든 철학자라는, 인간만이 갖는 모순·분열을 지닌 “그는 내가 된다.” 인간은 정치적으로 노예일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주인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의 주인으로 설 수 있다는 암시를 던져준 독서체험인 것이다. 한 문학평론가는 “그는 삶의 긴 여정을 통해(세계의) 실체란 시간에 따라 변모하고 인간은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지 깨닫는다. 그리고 신이 죽은 시대에 들어서는 유일한 이성인 혁명이 아니요, 되돌아보는 시선이고, 그것은 체제도 이념도 아닌 너 자신이 신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준엄한 결론에 이른다”고 이 작품을 읽는다.

「화두」는 우선 해방,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한국전쟁, 4·19, 5·16, 유신, 광주 등 우리

현대사의 분수령을 이룬 사건들과 독일통일·사회주의권 붕괴·자본주의의 승리 등 세계사적 쟁점들이 작가의 고유한 기억과 끊임없이 교호하는 일종의 교양소설이다. “20세기를 한 개인의 생애 속에 응축시켰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소설은 하나의 사상서로 읽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색의 깊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일보 통일문제연구소장 박용배씨는 “수령과 최인훈”이란 최근 칼럼을 통해 “필자에게는 최인훈씨가 독특한 사회주의 학자로 보인다”고 고백할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독특하면서도 전문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색의 힘으로 21세기의 지형도 그려

특히 「화두」는 서구문화의 변증법에 필적할 만한 동양권 사유문화의 열쇠개념인 ‘화두’의 실제와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작가의 글쓰기와 삶의 원체험격인 두 사건을 ‘화두’삼아 인간조건의 화엄변상도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해방직후 북한 W시의 원산중 3학년때 당했던 ‘자아비관회’사건이다. 글 한조가리의 사소한 구절이 발미가 되어 비판대에 오른 ‘나’에게 ‘자아해체’를 경험케 한 사건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명희의 소설 「낙동강」에 대한 독후감이 ‘그 자체로 작품’이란 작문선생님의 평가에 고무돼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사건이다. 글쓰는 운명의 “탄핵과 축복”을 안겨준 두 사건들은 작품 곳곳을 선화하면서 가족사, 한국사, 나아가 세계사의 축소판 구실을 한다. 문자를 해독하면서 광적인 글읽기가 시작된 그의 독서편력은 이후 “두 가지 화두에 대응하려는 응답”이 되고, 환갑을 앞둔 지금까지도 그 화두를 풀기 위한 “낭비없는 독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화두는 깨달음의 한 소식이 들판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게 하듯이, 글쓰기란 무엇인가, 작가를 작가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인간의 실체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을 던지고 또 깨달음을 준다. 그러나 작가는 이같은 소박한 작품이해에 대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화두」의 ‘화두’는 ‘발생’이란 개념이다. 소설 속에서도 여러번 표현되지만,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이다. 이를테면, 닭이 알을 낳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과정은 단세포생물이 닭이 되기까지의 몇십억년의 과정의 되풀이이며 축

약판이다. 이같은 생물학의 법칙은 인간의 문명 발달사뿐만 아니라 의식과 지각의 성립에도 적용된다. 의식의 발생과정의 가장 분명한 규칙이 언어라고 할 때, 언어예술가인 작가의 고유한 임무는 언어로써 의식의 발생을 반복하는 일이다.”

작가는 ‘화두’와 ‘발생’이라는 고난이도의 관계틀 이렇게도 설명한다. “(화두란) 마음이 벗어놓은 허물들, 마음 머물다 간 거꾸집인, 이미 틀지어진 기성의 개념들을 벗어나서 마음의 생성과 변화를 거슬러 가보려는 결의가 내비치는 말이다. 생물학에서의 발생의 개념을 의식에 적용하려는 태도다. 이 발생이라는 개념으로 의식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서 제일 생산적으로 느껴진다.”

우발적 상황에 의해 발생한 특정한 ‘기억=나’에는 40여년에서 최소한 몇백만년이란 장구한 시간의 무게가 담기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삼라만상을 열려있고 깨어있는 기억으로 대면해서 항상 생생한 날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작가는 “기억의 현상학” “기억의 리얼리즘”이라 명명한다. 더 쉽게 말하면 “기억의 탐구”라고 한다. 기억을 끄집어내서 해체하고 다시 기억한 뒤 또 끄집어내서 또 해체하는 작업, 언제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작업인 셈이다. 그의 독특한 문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76년에 상재한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일독을 그는 권한다. 발생론을 문학론으로 환치시키본 저작이라고 한다.

“화두의 ‘화두’는 ‘발생’ 개념”

화두를 풀기 위한 필사적인 사유와 ‘남비없는 독서’로 일관한 그의 생애는 작품쓰는 일에 대해서도 “극한의 벼랑까지 내모는 버릇”을 관철한다. “무당이 신명내는 일을 ‘엄살’이라고 느낀다면 그 순간에 그는 무당이 아니고 그저 아낙네가 된다”는 구절을 통해 뽐내는 소설가적 책무에 대한 그의 자의식의 일단을 드러낸다. “나의 모든 정신적 재고·재보를 통털어 썼다”거나 “이 작품에 대해 겸손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 등등은 조금의 체사도 허용하지 않는 밀도높은 사색의 표현을 읽노라면 기꺼이 수긍케 된다.

치밀하게 직조된 방대한 사유 못지않게 「화두」는 소설이란 그릇으로 담아 낼 수 있는 온갖 양식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철학적 에세이, 단상, 경구, 희곡, 시평까지 담아내고 있다.

“희곡적 구조를 갖고, 문학평론의 문체도 서슴없이 취택했다. 제임스 조이스, 토마스 만, 카프카 등의 작품은 예술이자 종교이며 철학이기도 하고 극적 퍼포먼스이기도 하지 않은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으며 ‘틀의 차이’ 때문에 새롭게 쓰게 되는 것이다. 예술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형식이다.”

한편 작가의 ‘정신적 자서전’이라 요약되기도 하는 「화두」는 그의 정신을 촉발·자극시킨 책들에 대한 기억을 탐구한 작품이기도 하다. 작가의 책이야기는 첫페이지부터 시작해 마지막 페이지까지 빈틈없이 이어진다. 소설에 의하면 작가가 문자를 해독하기 전의 기억은 모두 다섯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아버지의 책장에서 발견한 ‘편집실용 사전 종류’였다. 도서관은 “큰 책”이자 “또 하나의 학교”이다. 책은 “시간의 보관자이자 그릇”이란 정의로부터 시작해, “책은 사람이고 사람은 책이다” “나는 권투중계를 듣지도 보지도 않으며 읽지도 않는다” “DNA라는 책”이란 ‘현상학’적인 정의까지 도출된다.

“예술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형식이다.”

현재 구매자에 대한 사유도 이어진다. “책의 구매자는 책의 내용을 원고 형태로 접하는 편집자와 달리, 처음부터 이, ‘책’의 형태로 내용에 접한다. 그곳에는 비유적으로 형식=내용의 상태가 성립한다. ... 이 환상은 독자에게 허락된 유일한 물질적 열락이다. 애서가, 애장 등의 말에 쓰인 애(愛)자는 그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을 대신한 책의 물질적 형태에 대한 집착을 표현한다; ... 그러므로 지금 손에 든 책은 그 순간에 고유한 것이 된 어떤 인간적 유적(遺蹟)이다.”

마지막으로, 최인훈씨는 현대 한국문학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예전에는 소설로만 가능했던 문학적 성격의 정서를 영상매체들이 다 해소시켜주는 마당에 “산문예술의 사생결단과 대정진이 필요하다”는 것. 안이한 방법으로는 소설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수는 없으나, 언어고유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정면돌파전략이나 영상매체의 특장을 소설속에 융화시키는 방법이 모두 유효하리란 진단이다. 어느쪽이든 방향착오는 아니지만 “호랑이 등에 탔으면 호랑이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말 것”을 한국 문학에게 주문한다.

—김중식 기자



어머니께 띄우는 봄 편지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
아이들의 왁자지껄함으로 봄은 꽃샘바람보다
한발 앞질러 다가와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마당 한 켠 거름더미에서
피어오르던 구수한 어지럼증마저도 그림기만 합니다.
오늘은 큰 맘 먹고 경동시장엘 나가 봄나물을 사왔습니다.
달래, 냉이, 썸바귀들에 묻어 있는
고향의 봄내음을 한아름 집안으로 보듬고 들어와
다듬다보니 향긋한 정감에 나도 몰래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공해에 찌들어 아직은 검은 가지로 서 있는
가로수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니
수건을 깊이 눌러 쓰고 봄을 캐던 어머니의 검게 탄
모습이 떠오릅니다.
햇볕 따스한 발들을 타고 앉아 어린 봄나물들을
부지런히 캐셨지요.
어쩌면 정성스럽게 다듬어 새벽장에 내다파신
어머니의 손때 묻은 봄내음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벽찬 감정이 헤일처럼
솟구쳤습니다.
유난히 꽃샘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오늘,
저녁상을 준비하는 제 눈시울이 왜 이렇게 시큰거리는지요.



출판전문회사 『한술기획』은 전자조판에서 편집교정, 자비출판, 제작에 이르기까지 출판 전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은행으로서 출판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기성·신인작가들의 옥고(玉稿), 출판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과 기존 출판사들께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참신한 발상전환으로 고정관념을 해체시킬 의욕적인 일꾼을 찾습니다.

• 편집(차장급) : 경력 3~5년 (남자) • 디자이너 : 경력 3~4년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